

“문화재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원행 스님, 이우성 종무실장 예방서

“사찰과 불화 등 전통 문화 · 문화재는 국가의 재산이기도 하다. 불교 문화유산을 종교적으로만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11일 이우성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의 예방을 받고 관계부처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원칙으로 한다면 원만 해결돼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어긋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 등에 있어 전문 인력이 대행하는 일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불교계 현안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스님은 “정부는 개별 문화재만을 인식하는 것 같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인적, 공간 자원도 필수적이기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면 단위로 생각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우성 문체부 종무실장은 “세속 법에서 원칙을 삼아야 하긴 하지만 종단의 목소리를 듣고 불법의 원칙도 함께 소통하고자 한다”며 “협의 중인 사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김지원 기자



출가상담사로 재위촉된 은산 스님(사진 왼쪽)과 위촉장을 전달한 교육원장 현응 스님.

출가상담사 은산 스님 재위촉

조계종, 2월 12일 위촉… 2년간 활동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은 2월 12일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비구 출가상담사 은산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은산 스님은 출가상담사로 지난 2017년 2월부터 활동했으며, 재위촉돼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됐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전화 · 입문교육 상담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출가의 인연을 맺어주고 있다”면서 “출가상담사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간 수고하셨고, 향후 2년 동안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은산 스님은 “사찰의 은사부터 선후배 스님들까지 모두가 출가상담사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출가를 발심한 사람들이 좀더 편안하게 불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가상담사로 위촉된 은산 스님은 2001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동국대를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종교상담사 양성과정 강사, 행자입문교육 상담, 거창군 삶의 쉼터 복지관 관장 등으로 활동했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 유적지에 연화세계 구현을”

Interview

룸비니에 연꽃 심는 성원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인도 대림정사를 시작으로
8대 성지에 연 보급 계획
현지인 소득사업 도움 되길

“현재 우리나라는 연(蓮) 시장이 과거보다 많이 발달했습니다. 관상용과 식용 가릴 것 없이 대중화됐죠. 하지만 부처님의 발길이 닿은 인도 · 네팔은 그렇지 않은데요. 관상용 연이 대부분이고, 식용 연이 있어도 활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룸비니동산을 비롯해 인도 8대 성지에 연을 보급해 연화세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여 년째 연을 유기농으로 재배하면서 연잎차, 연냉면, 연비누 등 각종 연 제품을 만들며 연 대중화를 이끈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이 인도 8대 성지에 연꽃 심기 운동을 펼친다. 성원 스님은 2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도 내 식용연 보급 의지를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성원 스님은 앞서 지난해 11월 인도성지순례 중 최초 비구니 유적지인 바이샬리 대림정사 입구인 콜후차지역에 30여 통에 달하는 연근을 분양했다. 이 연근은 선원사에서 재배한 것으로 식용연근인 홍련과 백련이다. 스님은 마을주민 협조를 얻어 대림정사 입구에 위치한 상가에 각각 한 통씩 연근을 분양해줬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성지에 연꽃이 많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1단계로 부처님 성지에 연을 보급하고, 2단계로 현지인들이 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고, 3단계로 연 농사가 소득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원 스님은 이를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9박10일간 인도 · 네팔 성지순례를 하며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동산에 연을 분양할 예정이다. 장소는 108산사순례회가 네팔정부로부터 제공받은 2000여 평의 평화공원이다. 성원 스님은 이미 혜자 스님을 만나 연 분양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3월 21일 현지서 혜자 스님과 함께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네팔과 인도에 연을 보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부처님의 나라에 부처님께서 좋아하신 연을 보급하는 것, 연이 보급되면 주변 환경이 정화돼 환경운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연 시장이 개발되면 지역민들이 수익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죠. 현지인들 반응은 좋습니다. 부처님이 좋아한 연을 식용으로도 쓸 수 있으니 얼마나 뜻 깊겠습니까?”

성원 스님은 이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연꽃을 국화로 삼은 국가에도 연 활용법을 전파한다는 원을 세웠다. 우선적으로 캄보디아에 연 아이스크림, 연냉면, 연국수 기술을 지도해주기로 협의한 상태다. 이는 성원 스님이 국내에서 개발해 특허를 얻은 연 가공품들이다.

“캄보디아는 국가차원에서 연사업을 대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한 차례 의견을 주고받았고, 빠른 시일 내 특허기술을 전해주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국내 연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앞으로는 불교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연을 알려 사람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미얀마 건조지역 물탱크 준공

동대 일산병원 연우회 후원
미얀마 내 식수시설 41번째

국제구호NGO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연우회의 후원으로 미얀마 3대 건조지역 중 하나인 만달레이주 냥우타운쉽 깐따야 마을에 생명의 물탱크를 준공했다.

이번 준공한 물탱크는 지구촌공생회가 미얀마에 건립한 41번째 식수시설로 동국대 일산병원 연우회 지도법사 덕유 스님과 회원들의 후원, 지역 주민들의 기여 및 노동력 지원 등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1월 26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연우회와 지도법사 덕유 스님은 물탱크 준공을 축하하고자 직접 미얀마 깐따야 마을을 방문, 생명의 물탱크 41호기 명판식과 준공식을 진행했다.



깐따야 마을 생명의 물탱크 명판식.

준공식에 참석한 덕유 스님은 “안전한 식수 공급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또 연우회는 물탱크 준공식 이후 깐따야 마을의 한 중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에게 학용품을 나눠주는 등 아이들의 꿈을 위한 응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준공된 41호기 물탱크는 총 용량 3만7854L(1만 갤런) 규모로 주민들과 학생 1,7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지구촌공생회는 향후 식수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사후관리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 ·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생명의 물탱크 준공으로 깐따야 마을 주민들은 안정적인 식수원이 확보돼 수인성 질병에서 벗어나고, 물을 구하러 다니는 수고를 덜게 됐다.

연우회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교직원으로 구성된 불자모임이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봉사, 지역사회 연계봉사 등을 통해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로, 2018년 12월 미얀마 깐따야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물탱크 건립비 및 학용품 지원비를 지구촌공생회에 후원했다. 이에 지구촌공생회는 12월 한 달간 물탱크 건립을 위한 지역조사를 진행한 끝에 여러 마을 중 주민들의 협조도가 높은 깐따야 마을을 건립 후보지로 결정, 1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준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사대학 법사법위 품수법회

“법사 법기 호지하는 선도자 되길”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2월 10일 동국대 만해관에서 2018학년도 제27기 대학 졸업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150여 대중이 동참했으며, 법위품수는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회암 스님이 증명했다. 학장 지일 스님은 “법사의 법기를 잘 호지하는 전법포교의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통일불교’ 서원 하심원 개원

2월 12일 칠곡 석정읍 소재 도량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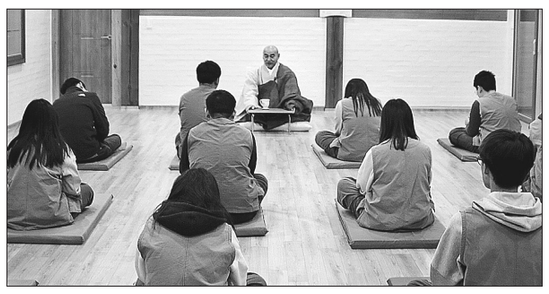


칠곡 하심원(주지 도선)은 2월 12일 석정읍 소재 부지서 개원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구미지역 동남아 다문화 가족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도선 스님은 “지역사회에 통일불교라는 서원 아래 여유를 갖고 대중이 소통하는 보금자리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소중한 원을 세워 도량을 개원하게 됐다”고 개원 취지를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장애청소년 나눔템플스테이

안동 희망샘 아동지역센터와 연계



고운사(주지 자현)는 2월 7~8일 안동지역 희망샘 아동지역센터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나눔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고운사는 이틀에 걸쳐 스님과의 차담, 소나무 숲길 걷기 명상, 108배, 단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새벽 및 저녁예불을 통해 장애청소년들이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윤호섭 기자

(사)청암봉사협의회 지역사회 자비나눔 전달

(사)청암봉사협의회(회장 석지암)는 지난 1월 29일에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자비의 온정을 전달했습니다.

1월 29일	여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쌀 600kg, 라면 5박스 전달
1월 29일	여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꿈이룸터에 쌀 100kg과 라면 3박스 전달
1월 29일	여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쌀 100kg과 라면 5박스 전달
1월 30일	여수시 돌산읍 세구지 노인정에 쌀 50kg 전달
1월 30일	여수시 돌산읍 지역아동센터에 쌀 50kg 전달
1월 31일	여수시 국동 노인정에 쌀 50kg 전달



(사)청암봉사협의회

회장 | 석지암 부회장 | 해군법사 총무 | 묘화심

2019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1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9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불심 깊은 불자님들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9년 3월 12일 ~ 9월 3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3시간)
④ 개강일자 : 2019년 3월 12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제13기- 수강생모집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전통범음범패 의식에 관심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개강일시
•2019년 양력 3월 8일 입교시작
•처음 입학시에만 입회비 20만원

수업형식
•수료 1년과정, 무료특강 (2년 코스)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만 수업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

교육내용
아침예불 / 종성 |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 천도재 (49재의식) | 천수바라 | 사다라니 | 도량게 | 다게

교육시간표(매주 금요일) *수업은 시간강사 개인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오전	09시	49재 의식	문곡스님
	10시	49재 의식	문곡스님
	11시	바라춤 연습	문곡스님
오후	1시	아침예불	법원스님
	1시	태평소	시우스님
	2시	육임 / 명리	해각스님
	3시	귀장술	원기스님

교육장소 문의 : 진효 010-5306-0856
•봉운사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고은리)

각종 행사 문의
| 회장 | 도연 010-8249-1259 | 강주 | 문곡 010-3727-0870 | 부회장 | 일구 010-2370-2953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도 연 合掌